

C, 各層連繫手法와 春舌의 處理

- (1) 一層……自然石礎石 위에 平均二·三尺直徑의 四柱를 세우고 拱包를 架構하였다. 丙三出目을 連接하여 長舌木을 重疊하고 一層春舌의 隣接部分에서 一即 礎에 昌枋上位部分 一우물天井을 베를었다.
- (2) 二層……기둥의 下端을 平切하고 中央에 突起를 만들어 鞍物에 固定立柱하였는데 位置는 一層拱包 丙一出目に 該當된다. 柱身은 春舌와 산지로 連接되어 相互의 動搖를 抑制하게 되었다.
- (3) 三層……二層과 同一한 手法、二層拱包 丙一出目 該當部分에 位置하고 있다.

三層의 立柱鞍物은 平枋木으로 拱包와 連繫되어 있다.

各層의 四柱가 立柱한 丙一出目の 位置는 力學的으로 가장 健實한 地點이며 拱包의 先端이 처마의 荷重으로 前傾되려는 힘을 抑制하는 要點이어서 初創者는 立柱로 因한 效果를 二重으로 期待하였던 모양이다. 여기에 다시 心柱의 抑制을 加味하여 한층 效果의 인 手法를 添加한 것은 緻密한 計劃이 었음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다. 各春舌가 柱身에 一次連繫되고 心柱에서 固定된 것도 이와 같은 二重의 效果를 充分히 利用한 것이었다.

D, 拱包

一層은 丙外三出目 같은 포작을 짜들린 것이고 二、三層은 外二出目만을 만든 것인데 二、三層拱包의 後便身은 山彌를 倣하여 各積心木과 柱礎의 鞍物을 받도록 되었다. 春舌은 仰舌이고 外目道里받침은 雲工이다.

E, 架構

기둥윗몸에 昌枋을 짜들리고 平枋을 얹은 後에 拱包를 架構하고 道里를 놓았는데 一、二、三層에는 柱心道里와 外目道里가 있다.

一層에만은 天井이 있고 二、三層은 通層이며 一層바닥에는 板床을 하였다. 一層의 前面은 모두 開放하여 井字文의 四分閣을 달고 左右側面에는 한쪽의 出入門을 내었다. 後便壁前에 佛壇을 備置하고 李朝如來坐像을 安置하였다. 殿은 三層 共히 四方이 一間인데 一層의 平面은 一面이 一三·三五尺이고 二層은 一〇·八五尺, 三層은 八·六五尺이다.

F, 丹青

外部에는 一層의 一部拱包材와 道里及椽木에 文樣의 部分이 殘存하고 二、三層은 별로 남아 있지 않으며 一層內部에는 比較的 詳細하게 남겨져 있는데 반 조머리의 모루丹青이다. 銘記는 없었다.

鳳停寺大雄殿의 舊材와 墨書銘

— 第四卷 第二號 通卷 三十一號 —

林 泉

去年十二月 大雄殿補修時 各拱包上面 柱心道里 下部에서 同殿의 舊材로 보여지는 頭拱이 發見되었고 上椽道里와 東北隅春舌上面(蛇羅밀바다)에서 墨書銘을 읽을 수 있었다.

一、頭拱(圖1)……大雄殿 現存柱頭와 樣式이 다른 것과 亦是 異質의 小 椀차가 發見된 것인데 이는 多包系樣式物이 아니고 柱心包系의 樣式物이다. 이 두 部材는 元來부터 拱包의 基調가 되는 頭拱이었다. 柱頭의 樣式은 修德寺大雄殿系의 것으로 「椀」은 曲面이며 그 받침이 있다. 椀차는 그 端이 斜切되었고 草刻이 意匠되었다. 이러한 草刻은 江陵客舍門等의 麗末遺構에서 多數 發見되는 形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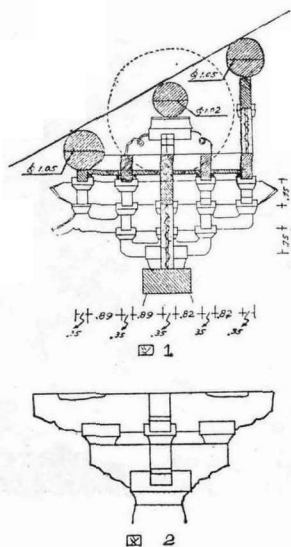
二、墨書銘……A, 上椽道里

萬曆二十九辛丑「改椽重修三六十一年」康熙(以下未詳)(宣祖三十四年, 一六〇二)

B, 東北隅春舌銘

嘉慶一二六年
前「魯於康熙乾
隆中改」修重葺
三百年云云然「
年代該算」(以下
施名略)

大雄殿의 補修年



月日に 대하여는 同寺德輝樓懸板「兩堂重修記」에 詳論되었으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頭拱部材에 대하여 의문을 품어 본다.

此部材가 確實히 大雄殿의 舊材라고 한다면 세가지의 의문이 있다.

其一은 現存建物과 舊部材의 大雄殿과 어떠한 관계이었겠느냐 하는 것이고

其二는 現存大雄殿의 造營經緯이고

其三은 極樂殿과 舊大雄殿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밝혀지면 現存大雄殿만이 寺內他建物과 異質적으로 多包系樣式을 갖고 있는데 대하여 解明될 것이고 極樂殿造營當時의 境內 配置物에 대한 意圖가 밝혀질 것이며 잊은 麗代의 遺例가 하나 添加되게 될 것이다.

三

長谷寺大雄殿은 高麗式의 部材와 李朝式의 部材가 混合 結構되어 있다. 餘他建物에도 舊材를 繼續 新建物에 使用한 例는 許多하다. 그러나 棋包가 變異된 別개의 것인 點은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四

柱頭굽이 曲面이면서 「굽」받침이 없는 것(圖2)과 있는 것이 같은 境內에 있음은 아직까지 없던 新例이다.

以上 諸疑問을 提起한다. 이것은 아주 興味 있는 問題가 되리라 생각 한다. 이것의 해답이 얻어지면 우리나라 木造建築樣式上 밝혀지지 아니 한 몇가지 問題가 解決될 수 있는 資料가 얻어지리라 思料된다.

李朝在銘 白磁壺의 一例

李 殷 昌

最近에 忠南瑞山郡 音岩面 流溪里 大橋에 居住하는 慶州金氏家의 世傳之物로 내려오는 在銘 李朝 白磁壺를 調査한 바 있어 이에 紹介한다.

圓筒形有蓋壺로서 現今은 그 壺蓋가 없

어지고 壺身만이 남아 있다. 現存하는 壺身은 아랫도리와

윗도리의 直徑 數值가 같은 直축한 圓筒

形의 항아리로서 앞

은 굽다리가 넓직한 底面을 이루어 壺座

의 安定感을 주고 있다. 壺口는 壺身이 그대로 올라가 形成되었는데 蓋에 맞도록 「턱」을 이루었다. 그 數値는 壺體의 總高가 三七·五cm

口徑이 二四·四cm로 보기 드물은 形態요 또 大形에 屬하는 典雅한 圓筒 形항아리이다.

窯燒手法에 있어서는 紋樣도 없고 水裂도 보이지 않는 乳白色인 바簡古한 氣品이 形態와 잘 調和된다. 그 白磁釉調는 單調한 品格과 淸靜한 感覺을 주고 있어 마치 白衣民의 純潔한 象徵인 것과도 같다. 壺底굽다

리 圓內에 鐵砂로 쓴 銘文이 있으니 모두 三行銘인데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

忠淸道 瑞山「
大橋……金漢昌」
……」

忠淸道 瑞山 大橋는 當時 忠淸道 瑞山郡 大橋洞으로 現今 忠淸南道 瑞山郡 音岩面 流溪里 大橋洞 곧 「한다리」라는 地名을 指稱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 繼續한 字銘이 있으니 磨滅로 判讀치 못하겠고 다음에 金漢昌 姓名三字가 보이니 이는 圓筒形白磁壺의 主人公이며 또 다음 三行에 도 字銘이 있었던 모양이나 亦是 磨滅로 判讀치 못하게 되어 遺憾이었다. 金漢昌은 慶州人으로서 元直이며 白磁壺의 所藏者인 金昌鎬氏의 九代祖인 肅宗十二年(丙寅)에 出生하여 英祖三十二年(丁丑)에 七十二歲

